

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도 휘청...5집 중 1집 '적자 살림'

4분위 적자 가구 비율 2.2%p 늘어 18.2%...3분위도 17.1%

고소득층 5분위도 적자 가구 비율 증가...근로소득 감소 영향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가량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와 근로소득 감소가 맞물리면서 고소득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6.8%였다. 1년 전(26.7%)과 비교하면 0.1%포인트(p) 소

폭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2.2%p 증가해 18.2%가 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14.8%)와 비교하면 3.4%p 늘었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17.1%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 가까이 소비 여력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적자 살림'을 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p 증가한 9.4%를 기록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9%p 증가한 28.9%였다. 반면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2.0%p 감소해 60.3%로 개선됐다.

중산층·고소득층 가구 '적자 살림 증가'의 배경에는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부진한 소득 증가가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늘지 못하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1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만4000원(11.2%)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5000원

(1.1%) 줄며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기 3분위·4분위 가구의 지출은 각각 5.9%, 4.5% 늘었지만, 소득은 각각 5.4%,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3분위가 3.8%, 4분위가 0.7%로 부진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감소하면서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0%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방카슈랑스 보장성 보험 가입 감사 이벤트

7월까지...문화상품권 지급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 방카슈랑스(은행 Bank와 보험 Assurance의 합성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판매 중인 보장성 보험 ▲건강(생보) ▲질병(손보) ▲상해(손보) ▲간병(손보) 중 월납 1만원 이상 상품 신규 가입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경품은 가입 상품의 월납입금에 따라 ▲문화상품권 5000원(월납 보험료 1만원 이상) ▲문화상품권 1만원(월납 보험료 2만원 이상) ▲문화상품권 1만 5000원(월납 보험료 3만원 이상)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 와뱅크 앱,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화 광주은행 WM고객부장은 "질병이 발생하는 나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보장성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맞춰, 자산관리부터 건강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에서 판매중인 방카슈랑스 보장성보험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주요 3대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간병보험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로 인한 후유증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보험,

저축 기능이 부가된 페이백형 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페이백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납입기간과 동일기간동안 매일 생활자금 형태로 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호남통계청 호남권 지역통계 발전협의회 개최

지자체 부서장들 통계 이해도 높여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지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2024년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호남지방통계청, 호남권 내 지자체 통계·연구·조사·기획·연구 등 16명이 참석했다. 비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허브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학계, 연구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호남권 내 통계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신규 통계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통계 중장기 발전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 관련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2024년 지역통계 개발·개선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지역 내 기초 지자체 부서장들이 참석함으로써 통계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적으로 올해 호남지방통계청의 '통계조사·품질관리 및 컨설팅 지원', '기회보도 작성 및 통계데이터센터(SDC) 광주·전북·제주의 운영관리', '지역통계 개발·개선 및 맞춤형 사업' 등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호남권 지역통계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통계분석 서비스 협업을 위한 확대·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비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호남권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 주요 지자체 및 학계, 연구원 등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며 "논의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역대급 정부지출에도 더딘 민생 회복...재정 수요는 '눈덩이'

가구 소득 줄고 소비지출도 정체 법인세수 쇼크 겹쳐 재정 적자 급증

올해 초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가구 소득이 줄고 소비도 정체하는 등 여전히 민생 회복은 더딘 모양새다. 올해 재정 여력이 일부 소진된 상태에서 3월 법인세수 '쇼크'까지 겹치며 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지만 1분기 가계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악화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과 온도가 차가 크다.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1.6%)으

로 줄었다. 실질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 했다. 지출액 자체는 3.0% 늘었지만 결국 모두 물가 상승분이었던 셈이다. 1분기 약화한 가계 살림살이는 연초부터 '민생 회복'을 목표로 역대급 재정을 쏟아부은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 1000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기준(212조2000억원)으로도 가장 많다. 역대급 재정 집중집행은 좋지 않은 세수 상황과 맞물리면서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민생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 당국의 고민을 더 무겁게 한다. 모두 상당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더는 시기를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다. 정부는 지난 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놴다. 가장 저출생부담을 신선했을 산출을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하남산단 소통 간담회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 24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양동구 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입주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양 청장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최저한

세율 인하 요청 ▲이월공제세액 증액분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 포함 ▲지방소재 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양동구 청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현장의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석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이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비즌' 맥주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주류 브랜드 '비즌'의 다양한 맥주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30일까지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비즌'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비즌'은 남원시 시민협동조합의 주류 브랜드로, 남원시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청년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주류를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전, 삼성전자와 전력설비 운영기술 MOU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23일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전력설비 운영분야 기술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병준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김재열 삼성전자 DS부문 전기기술팀 부사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과 삼성전자는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 상태평가 및 진단기술 ▲고장 예방사례 ▲예방진단 신기술 적용 및 운영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AI 기반 예방진단 통합시스템을 통한 전력설비 상태판정 및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K-반도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사는 향후 협약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술협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산업과 반도체산업에서 세

계적 수준을 갖춘 한전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전은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첨단 산업의 발전과 도약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우수 민간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로도복권 (제 112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24	31	32	38	44	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24,513,262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0,898,347	76
3	5개 숫자일치					1,565,723	2,95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8,984
5	3개 숫자일치					5,000	2,494,773